

곡성, 전국 최초 ‘전통시장 노점 카드결제’ 지원

기본소득·소비쿠폰 수혜 확대··매출 증가로 지역경제 활력
조상래 군수 “전통시장 활성화··현장 중심 정책 지속 추진”

곡성군이 전통시장 노점에서도 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노점 카드결제 지원 서비스’ 운영에 들어갔다.
20일 곡성군에 따르면 10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기에 맞춰 전통시장 노점 카드결제

지원 서비스 시범운영에 들어갔고, 11월 곡성군 전남형 기본소득 선불카드 지급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서비스는 전통시장 노점의 구조적 한계였던 카드 결제 불가 문제를 행정과 상인회가 협력

해 해결한 전국 최초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곡성군은 노점 결제 편의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력해 상인회 소유 카드리더기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통시장 버스 도우미를 현장 결제 지원 인력으로 투입해 카드리더기를 들고 시장 곳곳을 돌며 노점에서 발생하는 결제를 즉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방식은 단말기 설치가 어려운 노점 특성을 반영한 선도적 모델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

장 먼저 운영한 사례로 평가된다. 서비스 도입 효과는 11월 전남형 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바로 나타났다.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은 단 하루만에 노점에서만 일 매출 1000만원을 기록했고, 육과·석곡 전통시장도 각각 400만원 이상의 매출 성과를 기록하며 카드결제 도입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결제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방문객의 소비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곡성군과 전통시장 상인회가 함께 협력해 전통시장 매출 증가라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곡성군은 향후 상인회와 함께 결제인력 지원 확대, 카드리더기 운영 효율화, 노점 결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시장 활성화 정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최근 고흥군 금산면 연소마을에서 첫 청소년 수련시설인 ‘거금도 유스호스텔’ 준공식을 개최했다.

고흥 유스호스텔 건립 ‘눈 앞’...내년 1월 정식 개관

첫 청소년수련시설··객실·수련 활동장 등 다양한 활동 공간

고흥군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이 막바지에 다달았다.
20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금산면 연소마을에서 첫 청소년 수련시설인 ‘거금도 유스호스텔’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는 공영민 고흥군수, 류재동 고흥군의회 회장, 이신근 섀벨리그룹 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거금도 유스호스텔은 섀벨리그룹과 계열사인 ㈜동광개발이 40억원을 투자해 2009년 폐교된 금산제일초등학교를 대지 1만1225㎡, 연면적 991㎡ 규모로 리모델링과 증축을 통해 완성했다.

객실은 총 15실로 최대 100여명이 동시에 숙박할 수 있으며, 수련 활동장과 체육 활동장, 야영장, 옥상정원 등 다양한 활동 공간이 마련됐다.
정식 개관은 2026년 1월 예정이다. 유스호스텔은 청소년들의 문화와 교육 등 건전한 여가 활동 공간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또 거금도 야구장과 김일기념체육관과 가까워 고흥을 찾는 동계 전지훈련 선수들에게도 편의 제공할 수 있으며, 2027년 고흥군에서 개최되는 전남체전 기간에도 숙박 인프라 보완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신근 섀벨리그룹 회장은 “폐교 활용의 성공 사례로 지역의 기억을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기능을 더한 공간으로 완성했다”며 “청소년 단체활동·가족여행·마을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영민 군수는 “폐교가 청소년과 방문객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해 매우 뜻깊다”며 “유스호스텔은 부족했던 숙박 인프라를 보완하고, 전지 훈련팀과 단체 관광객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이번 유스호스텔 준공으로 청소년 교육·체험 환경을 강화하고, 전지 훈련팀과 관광객 수용 능력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보성, 향토문화유산 12건 신규 지정
소유자와 유산 보존·활용도 체계화

보성군이 살아 숨 쉬는 지역유산 육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일 보성군에 따르면 2025년 향토문화유산 발굴 사업을 통해 총 12건의 신규 유산을 확인하고,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의 심의·지정 예고 기간을 거쳐 군수 지정서를 최종 발급했다.
군은 지난 2월부터 지역 내 미등재 유산을 대상으로 조사·발굴을 진행해 숨겨져 있던 유산들을 재발견했다.
이후 9월 22일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심의에서 등재가 확정됐으며, 20일간의 지정 예고를 거쳐 공식적으로 향토문화유산으로 인정됐다.
지정서 발급 행사에는 소유자 8명이 참석했으며, 군은 지정서 발급을 통해 보성군과 소유자가 함께 유산 보존·활용을 더욱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새롭게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은 건축물 7건, 전적·고문서 4건, 무형유산 1건으로 구성돼, 등재 폭이 다양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군은 2017년 12건, 2024년 10건에 이어 2025년에도 12건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지역 내에 여전히 발굴되지 않은 문화유산이 무궁무진함을 확인했다.
김철우 군수는 “보수·정비, 안내판 제작과 같은 눈에 보이는 정비뿐 아니라 유산에 담긴 역사 발굴, 프로그램 제작 등 사업을 추진해 우리 문화유산이 살아 숨 쉬는 자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tmth66@

국제크루즈 ‘미츠이 오션후지호’ 여수 입항

7척 입항·1만여명 해외 관광객 방문
내년 15척··크루즈 관광 확대 기대

올해 마지막 국제크루즈인 일본 ‘미츠이 오션후지호’가 20일 여수항에 입항했다.
이날 입항한 크루즈에는 승객과 승무원 약 740명이 탑승했으며, 크루즈가 여수항에 정박하는 8시간 동안 이순신광장, 진남관, 아쿠아플라넷, 자산공원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본다.
여수시는 올해 마지막 크루즈 입항을 환영하기 위해 시립국악단과 지역 풍물단의 환영·환송 공연, 무료 셔틀버스 운행, 지역 특산물 팝업스토어 운영, 전통문화 체험 이벤트 등 다양한 환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올해 여수항에는 총 7척의 국제 크루즈가 입항해 약 1만명의 해외관광객이 여수를 찾았다. 시는 재개관한 진남관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기항관광 프로그램 운영, 개별관광객

증가에 대응한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확대했다.
또 여수시는 기항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내 전세버스 이용, 관내 유료 관광지(식사·체험·입장료 등) 1곳 이상 이용을 조건으로 하는 ‘크루즈관광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도 해당 제도를 활용한 여행사가 많아 지역 관광 소비 증대에 기여했다.
여수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국제 크루즈 유치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미 내년도에는 15척의 국제 크루즈 입항이 예정돼 있으며, 신규 노선 검토도 이어지고 있어 여수항의 국제 기항지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올 한 해 7척의 국제 크루즈 입항을 성공적으로 지원하며 기항지로서의 신뢰를 높였다”며 “선사 맞춤형 마케팅, 기항관광 프로그램 개발, 크루즈 터미널 수용태세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해 글로벌 크루즈 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깊은 풍미·육즙 어우러진 ‘광양불고기’ 맛보세요

광양, 가을 제철음식 추천...“기력 복돋는 보양 음식”

광양시가 늦가을 기력 회복을 위한 제철음식으로 ‘광양불고기’를 추천했다.
광양불고기는 청동화로에 참숯을 피우고 얇게 저민 소고기를 구리 석쇠에 올려 구워 먹는 음식으로 은은한 불향과 촉촉한 육즙이 어우러져 깊은 풍미를 자랑한다.



조선시대 ‘천하일미 마로화적, 세상에서 첫째가는 맛은 마로(광양)의 불고기’라는 말이 전해질 만큼, 광양불고기의 감칠맛은 오랜 세월 인정받아 왔다.
400년 전통을 이어온 정통 조리법과 자연의 맛이 조화를 이루는 광양불고기는 이제는 국내를 넘어 세계 미식가들이 찾는 대표 K-푸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요즘처럼 기온이 급격히 낮아져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계절에는 숯불 위에서 자글자글 구워낸 따뜻한 광양불고기가 몸을 덥히고 기력을 복돋는 보양 음식으로 제격이다.
광양불고기 전문점이 즐비한 서천변에는 광양 불고기의 유래와 전통을 소개하는 스토리보드와 이색 조형물이 조성된 ‘광양불고기특화거리’가 자리해 흥미를 더한다.

특히 늦가을에는 은행잎과 단풍이 어우러져 식사와 산책을 함께 즐기기에 좋은 계절 명소로 더욱 사랑받는다.
이현주 광양시 관광과장은 “광양불고기의 따뜻한 풍미와 더불어 백운산과 섬진강, 광양만이 빛어낸 옥룡사 동백나무숲, 배알도 섬 정원, 인서리공원 등 광양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함께 둘러보며 늦가을 광양의 매력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은 백운산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참숯 덕분에 예로부터 숯불구이 문화가 발달해 광양불고기뿐만 아니라 광양닭숯불구이, 광양장어구이 등 기력을 보하고 따뜻한 기운을 더해주는 다양한 숯불요리가 면면히 전해 내려오고 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함평군이 지역 명승지 ‘기산봉’을 사계절 군민과 관광객이 찾는 힐링 명소로 조성하고 있다.

‘기산영수’ 함평, 기산봉 힐링 숲길 조성

사계절 명소...역사·문화·생태 자원 연계 기대

함평군이 지역 명승지 ‘기산봉’을 사계절 군민과 관광객이 찾는 힐링 명소로 조성하고 있다.
20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기산봉 일대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군민에게는 일상 속 힐링 공간을, 관광객에게는 새로운 체류형 관광지를 제공하기 위해 힐링 숲길을 조성했다.
함평읍을 감싸고 있는 기산은 조선 시대 관료 이안(李岸)이 귀향해 “마음에 티끌 없이 살겠다”는 의미로 중국 고사 ‘기산지절(箕山之節)’, ‘기산지지(箕山之志)’에서 따온 이름이다.
또 함평을 가로지르는 함평천과 함께 ‘기산영수(箕山映水)’로 불리며 오래전부터 함평이 가진 자연환경을 대표하는 지역 명승지로 알려져 있다.
군은 앞으로 기산봉·수신봉 스텝트루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계절별 체험 프로그램을 접목해

걷기와 체험이 함께 있는 산림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숲길 정비와 보행 데크 설치, 전망 샹터 등 순차적으로 편의 시설을 확충하며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시켜 나갈 방침이다.
특히, 힐링숲길 주변에는 봄의 수선화, 여름의 금계국, 가을의 취나물·화살나무 단풍, 겨울의 송악 등 계절별 식생을 보완해 사계절마다 색다른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숲길로 가꿀 예정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기산봉은 함평을 대표하는 자연 명소로, 이번 숲길 조성을 통해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사시사철 찾는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산봉의 역사·문화·생태 자원을 연계한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